

# 전주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 지하 1층 배관 교체 중 폭발 사고로 5명 부상

전주시는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삼천동 소재 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배관 교체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 5명이 발생했다고 시청 브리핑실에서 밝혔다.

이 화재로 근로자 이모(38)씨 등 5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 후송됐다. 사고는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조 슬러지 배관 교체 작업 중 잔여 가스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다.

환자 중 2명은 위독상태로 대전 화병원과 충북 오송 베스테인 등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 재산피해는 추가 폭발 우려가 있어 파악이 안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시는 곧 상황을 통제하고 구급차와 특수 구조대 등을 요청, 경찰과 소방서와 함께 5명의 부상자를 신속히 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 긴급출동한 소방, 경찰 등은 인력 84명과 장비 22대를 동원하여 진압에 나

섰으나 지하 2층 가스 잔존에 따라 현장 접근이 어려웠다. 3일 오전 현재 경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은 사고 현장 감시 중에 있고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잔존 가스에 의한 2차 폭발 우려로 건물 진입이 통제되면서 전주시 음식 쓰레기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대원 농산 등 외부업체 7개사에 의뢰하여 음식물 반입동 앞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6일부터는 1일 처리비용 3600만 원을 들여 암물 박스에 담아서 처리 장소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자연·사회재난을 100% 예방할 수 없지만, 일어나서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환자 지원을 포함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사고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일반 건설 업체에 맡긴 결과"라며 "시가 리사이클링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기 기자

## 어린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

### 전주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전주 놀이주간 운영

전주시는 지난 4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 아동과 부모 등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및 전주 놀이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린이 중 남녀 대표 어린이의 '어린이 헌장' 낭독 후, 이어 건강하고 빠르게 생활하는 모범어린이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표창을 받은 어린이는 봉사·예능·체육·과학기술·효행 부문 등 총 12명이며 8명의 아동복지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이후 케이팝 댄스 축하공연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4일과 5일 이틀간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 놀이주간'도 운영했다. 놀이주간은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놀이마당 △체험·홍보부스 △부대행사 등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에 앞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 받은 전주시는 그동안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아동들의 참여권 및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어린이 마라톤대회 개최, 놀이주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맘껏 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전주의 미래인 모든 아동이 어린이날을 즐기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맘껏 뛰놀고 꿈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근로자 빠른 쾌유를, 추가 사고 없도록 전 시설 안전점검”

### 우범기 전주시장, 리사이클링타운 사고 관련 긴급 브리핑 통해 상황·대책 언급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청 브리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전날(2일) 오후 6시 42분께 발생한 리사이클링타운 사고와 관련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우 시장은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빠른 쾌유 및 위로, 사과의 말을 앞세우면서 "리사이클링타운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슬러지 배관 교체 중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시는 재난 발생 즉시 상황을 통제하고 구급차와 특수 구조대 등을 요청, 경찰과 소방서와 함께 5명의 부상자를 신속히 전문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운을 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3일 오전 1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밤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 합동감식 등 소방당국에서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우리 시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빠른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는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밤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전날 사고 발생을 보고 받은 후 곧바로 사고 현장을 두 차례에 걸쳐 찾

아,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소방당국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청취 및 확인했다.

특히 우 시장은 사고 당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등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피고,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이송상황 및 위증 정도를 파악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긴급 간부회의 자리에서 "자연·사회재난을 100% 예방할 수 없지만, 일어나서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환자 지원을 포함해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긴장해서 영화제를 포함해 각종 행사·축제가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바란다"면서 "오늘부터 열흘간을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전 실적이 모든 시설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의회, 영화·영상 전문가들과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와 영화·영상 전문가들이 지난 3일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전주 영화·영상 산업화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의회 이성국의원의 사회로 뉴질랜드 큐뮤필름스튜디오 피터유 대표와 전주국제영화제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송영진 시의원(문화경제위원장)이 자유 대담 형식으로 참여했다.

피터유 대표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도시 도약을 위한 준비 방안, 주력 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방안 등을 토대로 전주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향로 개척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영화를 매개로 한 관광산업과 영화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영화제 브랜딩 계획 등을 예로 전주 영화·영상 산업도시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욱기 기자



송영진 의원은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큐뮤필름스튜디오와 함께 전주 제2의 촬영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 등 1년 전 바람이 현실화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시의 대표 미래먹거리산업인 영화·영상산업이 더욱 글로벌화 되고 전주 대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큐뮤필름스튜디오는 지난해 전주시의회 공무원의출장을 계기로 만남이 성사돼 아시아 제2 촬영소 전주 설립을 전주시와 논의 중에 있다. /김욱기 기자

##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성황리 개최

### 국내 최대규모 138개 정원 산업체 참여 다양한 정원 소재 선보여

정원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 채워졌다.

전주시는 지난 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다양한 업체와 정원작가들이 참여해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올해 전주정원산업박람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국내 최대규모인 138개의 정원 산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정원 소재를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참여업체의 반절 정도인 70개 업체가 식물 소재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최신 정원식물 트렌드와 정보를 제공했다. 협업정원은 산업전 참여업체 중



1~3개의 업체가 힘을 모아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 올해 총 10곳의 협업정원이 선보였다. 시는 이러한 협업정원 조성과정에서 정원산업 관계자 사이의 네트워크(B2B)가 형성돼 정원산업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

올해 박람회에는 국립수목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각각 △식물에 대한 표준식물명 컨설팅 △나리정원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관람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특색있는 볼거리도 제공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전주를 정원산업의 중심으로 더욱 견고히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정원문화가 확산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전주시는 정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설공단, 건지산 일대서 환경정화 봉사활동 '줍깅' 펼쳐

건지산에서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건지산 일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단 체육공원운영부를 주축으로 직원 10여 명은 덕진배드민턴장에서 덕진축구장, 전주동물원, 전주승마장으로 이어지는 건지산 일대를 걸으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줍깅' 캠페인을 진행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jogging)'을 합친 말로 걸거나 뛰는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